

성과 창출 위한 군정운영 박차

진안군, 농촌경제국 신설 등 조직개편 완료·3대 핵심전략·6대 역점시책 추진

진안군 전춘성 군수는 27일 신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농촌경제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군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군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경제국 신설 등 조직개편 완료

군은 새해 들어 농림축산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경제국을 신설하여 업무·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또한 분청과 농업기술센터에 산재되어 있는 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집중 배치하여 원스톱으로 농업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기술 지도부터 사업지원, 유통, 마케팅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군정운영 방향

이렇게 조직개편을 단행한데에는 2021년을 군정 성과창출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군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춘성 군수는 "사람 중심의 지역소멸 위기극복 프로젝트 구축 등 3대 핵심전략과 풍요로운 지역경제 등 6대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그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27일 신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군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군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방점

전춘성 군수는 4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와 정치권, 지역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구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지역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며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군민들이 지역에 남고 청년들이 지역을 찾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33개의 군민과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전 군수는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는 신축년 설명절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쓸쓸한 명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공직자들과 더불어 군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지역 청년 창업 지원 탄력

군, 고용노동부 '무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 공모 선정'

무주군이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하게 될 '무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 공모(고용노동부)에 선정됐다. 이는 군이 올해 군정설계에서 제시한 7대 프로젝트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과도 걸 맞는 쾌거다. 이로써 무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들의 창업에 사용될 국비 6,500만원을 지원 받게 돼 무주지역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군은 2월 중 군청 홈페이지에 무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7명에 대한 모집 공고를 거쳐 선발할 계획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또 군은 2월 중 72시간 정도의 기본 창업교육, 창업 역량강화와 창업 아이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연내까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2021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소시엄 협약을 맺은 전주기전대학 산하협력단에서 실시한다.

군은 이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친 후 창업적격자 3명을 다시 선정하고 창업공간 조성시 사무실 임차료와 공공요금, 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무주지역의 비경제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모집

무주군이 오는 2월 10일까지 2021년 치매안심마을 참여 마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북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마을 선정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2020년에 지정되지 않은 마을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군은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최종 4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치매안심센터(063-320-860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주거환경 개선 절실"

"농촌마을 주택 낙후돼 위험 초래...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어야"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주민 주거안정대책을 보완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서 사업내역을 청취한 후 무주군의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윤정훈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었다. 주민이 농사일을 하다 다쳐서 거주환경 변화가 필요한 분을 위해 사업 신청기간을 상시로 두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군의 많은 동네에서 담장보수나 경관정비가 필요하다. 읍·면 소재지는 소재지 정비사업을 통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자연부락은 그렇지 않아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곳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장은 이 취지에 공감하면서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군이 시행하는

집수리 사업의 1개소당 지원상한액이 400만원인데 이는 적은 금액이라며 부서 간 유기적 업무연찬으로 더 지원할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설천면에는 임대아파트에 30여억원의 군비가 지원됐고 무주읍에 지으려는 임대아파트에는 세대 당 5,600만원, 총 공사비의 24% 수준인 56억원의 군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그런데 입주자 혜택은 아직 보고된 것이 없고 입주자들도 거된 부분이 있었다"며 무주군이 임대아파트 시행사 지원에 앞서 임대료 감감이나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자 혜택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무주군의회 의원들이 주거수준 향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무주군 내 많은 곳의 주택이 낙후돼 위험을 초래하고, 무주군에 새로 정착하려는 이주민이 발길을 돌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정훈 의원은 "군민과 귀농·귀촌인 등 예비주민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안전을 고려해 주거편의와 주민 생활수준을 높일 방법을 찾고 재원을 확보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운동 추진

장수군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그림책과 구성품이 수록된 꾸러미를 유아들에게 선물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스타트 꾸러미 신청과 더불어 부모의 도서관 회원가입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는 이 사업은 행사지원 민간단체인 북스타트 코리아와 연계하여 시행한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장수군에 주소를 둔 0~18개월 영유아들이 대상이며 꾸러미는 가방, 그림책 2권, 가이드북, 퍼즐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방법은 장계면에 위치한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북), 계남면 영유아는 군립도서관에서 보호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각 도서관에서 도서관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로 영유아들의 프로그램이 없는 요즘 집에서 책 꾸러미를 활용하여 영유아와 부모간의 올바른 유대감 형성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무주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3억여원을 투입(국비 50%, 도비 15%, 군비 20%, 자부담 10%)할 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농업인 자부담 비율을 10%(20%→10%) 줄였다. 농가 부담금을 줄인 만큼의 비

용은 무주군(5%)과 농협(5%)이 추가 부담한다.

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작물에 따라 가입 기간(연중)은 유동적이다. 자연재해, 화재, 태풍, 폭설, 병해 등 재해 범위의 보장 수준(60~90%)도 사과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벼, 복숭아, 포도 등 품목 별로 다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차 운영회의 개최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성수, 민간위원장 송재기)는 지난 26일 장수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차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장수읍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및 2021년 운영계획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다양한 복지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상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쌀독', '따뜻한 나눔냉장고', '장수(愛) 희망더하기 사연함'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신규 특화사업 발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성수 장수읍장은 "작년 한 해 관내 나눔 사랑을 실천해 주신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지만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다양한 특화사업 활동,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 조성과 함께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이 적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연구소 기술이전 수혜기업 모집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박충범)는 27일 진안군 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소 특허기술과 개발제품에 대한 기술이전 수혜기업 모집공고를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안소재의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기업이며, 기술 이전할 연구소 보유 특허기술로는 유효 진세노사이드의 손실이 없는 흑삼 제조 방법 및 상기방법으로 제조된 흑삼 등 2건, 개발제품으로는 홍삼과 오미자가 들어 있는 빼빼롤리 등 12건이 있다. 이번 기술이전으로 지역 R&D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모집공고는 29일까지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방문 접수와 이메일 접수로 진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